

“한국 경제 구조적 한계 넘어야… 정부-기업 간 협력 중요”

2026년 새해를 맞는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과 재계 총수, 금융권 협단체 수장들은 올해를 한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전환의 해’로 규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실행력 확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나아가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피력했다.

최태원 대한상의·SK그룹 회장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야”

구광모 LG그룹 회장
“과거 성공방식 뛰어넘는 혁신 필요”

정기선 HD현대 회장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야”

허태수 GS그룹 회장
“AI 비즈니스 임팩트’ 가시화 원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AX 가속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다시 성장하는 해… 높게 날아올라야”

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 4인은 2026년 새해를 ‘우리 경제 대전환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등 4대 경제단체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맞는 포부와 우려 등을 일제히 전했다. 이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은 “우리 경제가 대전환하는 골든 타임, 인류가 새로운 기술 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AI를 강조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있다며 ‘혁신’과 ‘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A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으로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물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도 약해야만 한다. ‘선택과 집중’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독보적 기술과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가자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 없는 도전’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무기로 삼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처음 발을 내딛는 용기”라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주저 없이 논의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실행력을 강조하며 퍼지컬 AI를 통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허 회장은 “변화에 대해 한발 앞서 실행하는 자세로 우리가 축적해 온 현장 중심의 도메인 지식과 퍼지컬 AI를 결합하고, 외부 기술 기업과의 과감한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임팩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6년을 ‘AI 비즈니스 임팩트’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2026년 전사적 역량을 모아 AI 대전환(AX)을 가속화하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026년을 ‘다시 성장하는 해’로 규정하며 “모든 준비는 마쳤고 이제는 높게 날아올라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1등 기업의 본성’ 회복과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기존 전략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물과 고객 욕구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협회 수장들도 금융의 역할 전환과 함께 AI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성장동력 약화가 중·장기 위험 요인”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규제 개선과 AI 전환을 통해 생명보험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와 신사업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위험과 고령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신용카드사가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이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영업 채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실채권 정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원관희·나유리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바닥찍은 韓…’서 계속

“조용히 좋아지는 한 해 성장 범위 확장이 관건”

국가별로는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교체,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 중간선거 등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변수로 꼽혔다.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정부의 대규모 산업 정책 투자와 민간 소비 회복으로 1% 후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산업정책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8조원을 편성한 만큼 산업정책 흐름에 따라 경제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ABCDE+2S’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위(Defense), 에너지(Energy), 반도체(Semiconductor), 조선업(Shipbuilding) 등 산업정책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변화를 예고한 만큼 경쟁력을 잃은 한계 제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군살을 빼고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체질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임보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는 급반등이 아닌 완만한 회복을 이루는 ‘조용히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 경제는 성장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 이미 움직인 성장을 얼마나 넓게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丙午年

2026년에도 유한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정진하겠습니다.

Progress & Integrity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SINCE 1926

